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의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상 통제 여론만 쳐다보는 정치는 착각”

“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르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하지만, 1987년을 기점으로 28년의 긴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최장집(72)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7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한국의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최 교수는 “국가의 권력집중이 너무 심해졌고,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 결사체가 허약해졌다.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진보적 정치학자인 최 교수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좋은 ‘대표’를 선출하느냐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공적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면서 “만약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통치권에 대해 국민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이해하면서 맘대로 한다면, 통치권의 위임만 있고 책임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사상통제다. 한국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야당의 ‘기술어진 운동장론’(운동장이 기술어진 탓에 상대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도, 실력이 뛰어나도, 승부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논리)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재 민주주의는 ‘대표’만 있고 ‘책임’ 없어”

정권교체 실패 알리바이 만드는 야당에 일침

총리 인준 등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교체는 어려운 일이었다. 야당이 정권교체를 못하는 것에 대해 (이런 논리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야당으로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사회 소외세력과 약자를 대변하지 않고서 표를 어디서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서 우선 노동자와 농민, 청년, 지식인 등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정책 플랫폼(선거 강령)에 들어가는 정책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전문 지식과 실력을 갖춘 인적기반을 확충해 방대한 정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수권(授權)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또 “여론은 그 시점에 특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의견일 뿐, 이성적으로 정리된 일관된 의견이 아니다”며 “여론중심의 정치를 하면 여론만 쳐다보게 된다. 야당 정치인이나 진보파들이 ‘여론은 우리 편이다. 다수는 우리를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를 마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희관 광주고검장, 검찰총장 후보에

김수남·김경수·박성재 4명 추천

김희관(52·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김 고검장과 함께 김수남(56·16기) 대검 차장,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 고검장 등 4명을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르면 29일 후보자 4명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 고검장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전고검장을 지냈고, 기획·공안 업무 능력 및 정책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보유했으며,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 연구에도 기여했다.

김 차장은 대구 출생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3년 만에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 중앙수

사부 3과장,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미레브라 사건’을 맡았다.

박 지검장은 경북 청도 출생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으며, 대검 검찰2과장,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 조작과 비자금 등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대구고검장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보그룹 특혜비리 의혹사건 등 대형 특수수사 분야를 처리하며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힌다. 김 대검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 비리와 범 조브로크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대법관, 수원지검 2차장,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전남 우수농산물 1000억원 구매 약정

28일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박근조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과 전영태 농협경제지주 청과사업단 단장, 최석진 전남농협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이 1000억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농협의 대표 도매조직인 청과사업단은 연간 7000억원 이상 구매력이 있는 도매 조직이다. 농협 전 계통매장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의 큰 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우수농산물이 청과사업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되도록 전남농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또 이날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15명을 초청해 전남 우수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등을 홍보하는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박람회 참가 기업들이 ‘aT’, ‘GS샵’, ‘타몬’ 등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품 소개와 납품 제안 등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 15일째를 맞은 국제농업박람회는 28일까지 국내외 바이어들과 1643억원의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여수서 열려

2015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가 ‘꿈꾸는 여성의 당당한 도전!’이라는 구호로 순천, 나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여수충곡체육관에서 28일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수와 광양 2개 지역 238개 구인업체가 참여했으며, 여성 인제 481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이 가운데 37개 기업체는 169명을 현장 면접으로 뽑았다. 나머지 201개 기업은 채용계시판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후면접을 실시해 3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업체와 구직여성들에 대해 박람회 이후 3주간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인제 채용관을 비롯해 직업(창업)체험관, 취업지원관 등이 운영됐다.

2015년 전남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오는 11월 5일 목포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2배 확장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중국 하얼빈 역에 건립된 안 의사 기념관이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확장된다.

하얼빈 안 의사 기념관측은 28일 “중국 철도 당국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하얼빈역을 단계적으로 개축하면서 새로운 안 의사 기념관을 역사 내에 건립할 계획”이라며 “규모는 현재의 200m에서

300~500m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관측은 “중국 당국이 벌써 수 년 전부터 하얼빈역사 개축을 준비해 설계를 마쳤는데 여기에는 기념관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당국이 안 의사 기념관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 기념관 착공시기와 관련해서는 “철도 당국이 공사에 들어가면 적어도 2~3

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통보된 바가 없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개축공사가 시작되면 안 의사 기념관은 역 바깥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새 역사가 문을 여는 시점에 맞춰 다시 역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임시 이전 장소는 현재의 기념관 전시장로 대다수가 전시됐던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정해졌다.

작년 1월 전격 개관한 하얼빈역의 안 의사 기념관은 지금까지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하얼빈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 인구가 많은 하얼빈역 내에 자리 잡아 안 의사의 사적과 사상을 흠모해 찾아오는 방문객을 비롯해 열차 이용객, 주민 등이 하루 평균 500~600명씩 찾고 있다.

안 의사 기념관 양상봉 관장은 “올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보도를 통해 하얼빈의 안 의사 기념관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기념관 확장에 맞춰 전시물을 더 알차게 준비해 그분의 숭고한 항일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